

2025. 2. 9.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9:1-6

제목: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설교 시간 35 분, 11 쪽: 9~19

(표준새번역) 9: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ESV) 9:1 And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after it has come with power."

9:2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9:2 And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9:3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9:3 and his clothes became radiant, intensely white, as no one on earth could bleach them.

9: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9:4 And there appeared to them Elijah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9:5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9:5 And Peter said to Jesus, "Rabbi,[b]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three tents, one
for you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9: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9:6 For he did not know what to say, for they were
terrified.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100 번 나옵니다.

이중 68 번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형태로
신약 성경 전체에 사용되었고, '천국(하늘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는 형태도 마태복음에서만
32 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하늘’로 바꾸어 부르는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성경,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예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해서 4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첫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막 1:14-15,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라고 외치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14-15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ESV) Mark 1:14-15 Now after John was arrested, Jesus came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 **둘째,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황'하고 내리 꽃으셨고, 이 땅 깊이 박혔습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습니다.

마 12:28,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ESV) Matthew 12:28 But if it is by the Spirit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같은 내용의 눅 11:20 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새번역)누가복음 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ESV) Luke 11:20 But if it is by the finger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즉, 천국(하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십시오.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 셋째,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

예수님의 비유들 대부분은 ‘천국은 마치...와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잘 모르는 새로운 것을 설명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원리,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마 13:31-32 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천국)가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31-32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ESV) Matthew 13:31-32 He put another parable before them,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It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but when it has grown it is larger than all the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make nests in its branches."

마 13:33 의 누룩 비유로 부풀어서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 주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ESV) Matthew 13:33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leaven that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flour, till it was all leavened."

씨앗이 자라 30-60-100 배 결실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밤새 자라나는 씨앗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 24:14, 천국 복음(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4: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ESV) Matthew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하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그때

◆ 넷째,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 새하늘과 새땅

계 21:1, 완성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준새번역) 요한계시록 21: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ESV) Revelation 21: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sea was no more.

이어지는 4 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와 아픈 기억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며,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표준새번역) 요한계시록 21: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ESV) Revelation 21:4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shall be no more, neither shall there be mourning, nor crying, nor pain anymore,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이 4 가지 중 어느 것을 알고 계셨고,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1 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표준새번역) 9: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ESV) 9:1 And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after it has come with power."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권능’(δύναμις, 뉘나미스)는 기적,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부수십니다. 그러므로 1 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하고,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사건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특히 곧바로 이어지는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 권능: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2 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명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9:2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9:2 And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 요 20:14-15,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도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산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할 겁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20:14-15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ESV) John 20:14-15 Having said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눅 24:15-16,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변화된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7 마일(11km, 2:30')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몰라봤다는 겁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24:15-16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ESV) Luke 24:15-16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together,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But their eyes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3 절, 어떤 빨래 전문가도 그렇게 새하얗게 만들 수 없을만큼 옷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9:3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9:3 and his clothes became radiant, intensely white, as no one[a] on earth could bleach them.

변화된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4 절, 믿음의 선배, 엘리야와 모세도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에게 간사람들이며,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9: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9:4 And there appeared to them Elijah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 **권능: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5 절, 베드로가 초막(풀로 만든 텐트)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9:5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9:5 And Peter said to Jesus, "Rabbi,[b]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three tents, one for you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그런데 6 절,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9: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9:6 For he did not know what to say, for they were terrified.

자기들이 무엇이랴 말하는지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당황하고 겁에 질린 베드로가 왜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거기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냥 모세, 엘리야,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다는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느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에서 ‘오르가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학자는 ‘극치감’(클라이맥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황홀감’을 경험했던 겁니다.

롬 14:17,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표준새번역)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ESV) Romans 14: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계 21:4 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사에서 경험해야 했던 불쾌한 감정과 느낌들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넘어서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감, 최고의 안정감,
최고의 기쁨, 최고의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표준새번역) 요한계시록 21: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ESV) Revelation 21:4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shall be no more,
neither shall there be mourning, nor crying, nor pain anymore,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두
곳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시고, 보고, 느껴 보십시오.

✓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눅 9:28,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9:28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ESV) Luke 9:28 Now about eight days after these sayings he took with him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 the mountain to pray.

29 절,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던 중에 모습이 바뀌고 옷이 희어졌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9: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Luke 9:29 And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clothing became dazzling white.

그때 제자들은요? 32 절,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32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2 Now Peter and those who were with him were heavy with sleep,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who stood with him.

제자들에게 은혜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게 되신다면,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내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랑꺼리' 삼지 마시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더 충성하고, 더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다음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감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뒤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겁쟁이로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좋은 영양소가 되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중요한 것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담 주일에 그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 은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보고, 느끼는 은혜를 주소서. 이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 ➔ 소망: 예수님의 다시오심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